

캠핑장부터 '키즈 패키지' 호텔까지 교실 밖으로 나온 교육·키즈업계

스마트스터디-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쿠아리움에 핑크퐁 콘텐츠

웅진씽크빅-롯데호텔월드

도서+놀이교구 'L키즈존' 마련

윤선생 애니 접목 '캠핑 프로그램'

키캉스(키즈+바캉스), 키즈테인먼트(키즈+엔터테인먼트) 등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자녀 동반 고객 공략을 위해 키즈 콘텐츠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어린이 전용 콘텐츠를 다양하게 보유한 교육·키즈 업계도 캠핑장이나 호텔, 관광지과 콜라보를 통해 키즈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영어교육 전문 기업 윤선생은 인기 애니메이션 '정글비트(Jungle Beat)'를 소재로 한 테마 캠핑장을 지난달 21일 오픈했다.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내 부지에 위치한 정글비트 테마 캠핑장은 기존 캠핑 및 관람시설에 애니메이션 '정글비트'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접목해 가족 단위 여행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공간을 조성했다.

캠핑장 이용객들은 캠핑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관람 및 문화체험도 즐길 수 있다. 아이가 박물관 내에 마련된 아프리카 미니동물원, 어린이 카트 체험장, 잉어먹이 체험장, 물놀이장, 트램폴린 등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즐기는 동안 부모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윤선생은 오는 하반기부터 윤선생 영어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글비트 뮤지컬 및 애니메이션 상영 등 아이들 전용 캠핑장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내 윤선생 정글비트 테마 캠핑장 모습. /윤선생

해 선보일 계획이다.

윤선생 관계자는 "이번 정글비트 테마 캠핑장을 통해 캠핑장 모객과 브랜드에 대한 홍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가족 단위 여행에서는 주로 자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업계 내에서는 여행, 문화 업계와의 콜라보를 통한 키즈 특화 서비스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웅진씽크빅과 롯데호텔월드는 키캉스를 즐기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 'L키즈존'을 오픈했다. 롯데호텔월드 2층에 약 100평 규모로 조성된 'L키즈존'은 웅진씽크빅 유아동 북큐레이션 서비스인 웅진북클럽 도서 600여 권과 놀이 교구, 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로 독서에 흥미를 붙이는데 도움을 주는 북패드 등 유익한 콘텐츠들로 구성됐다. 이용객들은 넓고 쾌적한 실내에서 독서를 통해 놀이와 교육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핑크퐁 캐릭터로 유명한 스마트스터

디는 지난 2017년부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전국에 운영 중인 4개의 아쿠아리움을 통해 핑크퐁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여의도 소재 한화 아쿠아플라넷63은 여름방학을 맞아 콘텐츠를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아쿠아리움 곳곳에 핑크퐁 포토존을 새롭게 마련하기도 했다.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 가면 인기 캐릭터 '바다탐험대 옥도넛'과 콜라보한 키즈달라이트 패키지를 만나볼 수 있다. 호텔 2층에 패키지 고객만을 위해 마련된 전용 키즈라운지에서는 옥도넛 포토존과 다양한 옥도넛 완구를 체험할 수 있다. 키즈라운지에서 별도 운영되는 옥도넛 클레이 만들기 클래스에 참여 가능하며, '바다탐험대 옥도넛'으로 꾸며진 전용 키즈풀도 즐길 수 있다. 모든 패키지 고객에게는 옥도넛 도장놀이 색칠복과 스티커북, 물놀이 색칠북이 담긴 옥도넛 선물세트도 증정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北 화성-15, 美 전지역 타격 가능”

(ICBM급 미사일)

주한미군, 첫 공식평가
사거리 1만2874km 추정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처음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미국 본토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공식평가했다.

올해 발간된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유엔군사령부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도 처음으로 들어가, 향후 일본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화성-13, 화성-14, 화성-15 등 세 가지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화성-14, 화성-15에 대해 주한미군은 "미 본토 대다수 지역 도달 가능", "미 본토 전 지역 타격 가능" 등으로 각각 평가했다. 이들 탄도미사일별 사거리는 화성-13이 3418마일(5500km) 이상, 화성-14가 6250마일(1만58km), 화성-15는 8천마일(1만2874km)로 각각 추정됐다.

올해 초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보유한 ICBM으로 화성-13, 화성-13개방형, 화성-14, 화성-15, 대포동을 거론하며 화성-15의

사거리를 '1만km 이상'으로 분석했다.

주한미군은 전략다이제스트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2016~2017년 거듭된 북한의 도발이 중단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미동맹이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근본적인 현상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평가와 함께 한국의 최근 미국산 무기구매 현황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됐다. 주한미군은 "미국은 290억 달러(한화 32조원) 이상의 대외군사판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 승인으로 대외군사판매를 통해 한국에 28억 달러(3조 2천억원) 규모의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게 되면서, 한국은 2013~2017년 130억 달러(14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 다이제스트는 유엔사를 소개하는 파트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는 감시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키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경희사이버대

2019학년도 2학기 1차

신·편입생 오늘까지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19학년도 2학기 1차 신·편입생 모집을 12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초연결사회, 인공지능(AI) 등 문명의 대전환기 변화를 이끌 미래지향적 전공 개설을 목표로 신·개편된 미래인간과학스쿨 등 3개 계열, 5개 학부·스쿨, 33개 학과(전공)에서 진행된다.

수능·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하고,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졸업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경희사이버대 재학생은 경희대 서울·국제캠퍼스 도서관 등 캠퍼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흥릉캠퍼스와 경기·부산·대전·광주지역 학습관 등에서 진행되는 특강과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특성화프로그램, 해외문화탐방, 특강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구직난에도 5명 중 2명 '합격 후 입사포기'

중소 입사 포기자, 대기업보다 13배

최악의 구직난 속에서도 구직자 5명 중 2명은 최종 합격하고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사람이이 최종합격을 해본 구직자 1338명을 대상으로 '합격 후 입사 포기 경험'에 대해 묻는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입사 포기 경험은 평균 2.1회였다.

이들이 입사를 포기한 기업(복수응답)을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79.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견기업(17%), 공기업/공공기관(6.9%), 대기업(6%), 외국계 기업(2.2%) 순으로 중소기업 입사를 포기한 비율이 대기업의 13배가 넘었다.

입사를 포기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연봉 등 조건이 불만족스러워서(30.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27.9%), ▲더 가고 싶은 다른 기업이 있어서(27.7%) ▲막상 입사 하려니 눈을 너무 낮춘 것 같아서(23%) ▲회사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21.9%) ▲교통편 등 출퇴근 조건이 힘들어서(19.1%) ▲명시된 채용 공고와 조건이 달라서(17.2%) 등

으로 나타났다.

입사 포기 의사를 전하는 방식은 '전화연락'(55.7%)이 가장 많았고, '문자 혹은 카톡'(23.4%), '직접 방문'(8.6%), '인사담당자 이메일'(5.6%) 등이 있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3.4%)는 응답도 있었다.

입사 포기 사유에 대해 '솔직히 밝혔다'(60%)는 응답이 많았으나 나머지 40%는 '둘러 말하거나 거짓말했다'고 했다. 입사 포기 사유를 솔직히 전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기업이 불쾌해 할 수도 있어서'(50.5%), '굳이 솔직히 안 밝혀도 될 것 같아서'(40.7%), '직접 밝히기 민망하고 미안해서'(35.5%), '나중에 재지원 할 수도 있어서'(9.3%) 등을 꼽았다.

입사 포기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10명 중 3명(32.9%)은 입사를 고사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회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구직기간이 길어져서'(39.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취업에 계속 실패해서'(37.5%), '이후 더 좋은 기업에 합격하지 못해서'(29.5%),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커져서'(29%), '취업 후 이직이 나올 것 같아서'(13.6%)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삼계탕 맛있어요”

초복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국제여름학교 외국인 학생 대상 초복 맞이 삼계탕 체험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학생들이 삼계탕을 들고 있다. /뉴시스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시작... 금리 '동결'

금리 2.2%...지연배상금률 6%로 ↓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대출 금리는 2.2%로 동결되고 지연배상금률도 6%로 인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학생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오는 10월 18일 1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과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은 11월 14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017년 2학기 0.25%포인트 인하한 2.25%였고, 2018학년도 1학기에는 0.05%포인트 인하했다.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상환 개시 전까지 소득분위 4구간 이하는 무이자로 지원되고, 군복무 기간 이자는 면제된다.

올해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 배상금률을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했고,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한용수 기자